J Korean Acad Nurs Adm (간호행정학회지)
Vol. 21 No. 4, 426-434, September 2015
ISSN 1225-9330 (Print) | ISSN 2288-4955 (Online)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26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오은정[1] · 고성희[2] · 김지영[2] · 김성렬[2]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1],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2]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Oh, Eun-jung[1] · Ko, Sung Hee[2] · Kim, Ji Young[2] · Kim, Sung Reul[2]

[1]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how they relate to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ethods:** For data collection 237 nursing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the participants showed moderate levels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r=.59, $p<.001$). and between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r=.22, p=.001). Social anxiety, private self-awareness, and internal other-awareness were significant factors, which explained about 37% of the variance in communication ability.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systematic and effective curriculum focused on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should be developed for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their communication ability.

Key Words: Students, Nursing, Awareness, Communic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조직은 대상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이라는 공동목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직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간호사는 대상자, 보호자, 동료 및 타부서 직원 등의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간호사가 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 증상완화 및 생리적 기능의 호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는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치료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핵

주요어: 학생, 간호, 인식, 의사소통

Corresponding author: Kim, Ji Young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54896, Korea.
Tel: +82-63-270-2401, Fax: +82-63-270-3127, E-mail: kimjjy@jb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오은정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 3, 2015 | Revised: Aug 25, 2015 | Accepted: Aug 26,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15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심역량중의 하나이다[1,2].

간호사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알아채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약해져있고 간호사가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바쁜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이로써 통증과 약물사용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과 바쁜 의료환경 내에서 자신의 모습과 대상자의 심리적 욕구를 알아챌 수 있는 자기와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위해서 간호사는 간호교육과정에서 부터 구조적이고 일관된 의사소통기술 훈련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던 간호사는 임상실무에서 의사소통에 대하여 배워야만 한다[1].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교육 이론교과와 의사소통 이론 학습 및 임상실습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시작할 때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건강관리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적 사정과 대인관계 및 대화를 통한 간호중재를 요구하고 있다[3,4].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대상자 사이에서 대화나 실습지 간호사와의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5], 이로 인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의욕상실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4,6].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는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으로 나가기 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교과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7].

간호학에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자의식,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이 있다[8-11]. 여러 변인 중 자의식은 자아인식으로 표현되어 타인이해와 함께 의사소통 교과목과 정신간호학 이론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의사소통은 두 사람 사이에 생각과 느낌을 말로 교환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자신과 타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타인을 수용하는 과정인 타인인식이 필요하다[2].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종교, 학년, 의사소통수업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인식의 사적 자기인식은 학년, 의사소통 수업경험유무, 자기성찰의 회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8].

자신에 대한 태도나 수용은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향상시키므로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12]. 또한 자기인식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필요한 기본적 도구이기도 하다[13]. 이러한 자기인식이 부족하면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14,15].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에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감을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인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6]. 이와 같이 자기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관련된 변인으로 제시되었음에도 [6,8]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자기인식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자기인식이외에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타인인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17,18]. 타인인식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그만큼 타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18,19]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타인인식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3개 간호대학 1~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다중회귀분석 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12개를 고려하여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184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3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승인번호 2012-13]을 받은 후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되었다. J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 3개교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해당 대학의 학장, 학과장 및 담당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관한 허락을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방법, 익명성 보장 및 연구기간 중 언제든지 연구철회의 자유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연구도구

1) 자기인식

자기인식 측정은 Fenigstein, Scheier과 Buss[20]의 자기인식검사를 Eun[18]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nu[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9였다.

2) 타인인식

타인인식 측정은 Eun[18]의 연구에서 사용한 타인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 타인인식 12문항, 외적 타인인식 5문항, 공상적 타인인식 4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un[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은 Lee, Chang, Lee와 Park[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해석 능력 14문항, 역할 수행능력 14문항, 자기제시 능력 7문항, 목표설정 능력 7문항, 메시지전환 능력 7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드물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Lee 등[21]의 연구에서 .7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의사사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05명(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 56명(23.6%),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60명(25.3%)이었으며, 4학년은 61명(25.7%)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40명(59.1%)이었고, 경제 상태는 '중'이 198명(83.5 %)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 중 127명(53.6%)이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20명(50.6%),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17명(49.4%)이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양상은 159명(67.9%)이 '인성지향 소통'이라고 응답하였고, 학업성취수준에서는 114명(48.9%)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40±0.3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공적기인식이 3.77±0.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적 자기인식 3.54±0.39점, 사회적 불안 2.88±0.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인식은 5점 만점에 3.41±0.50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내적 타인인식이 3.46±0.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적 타인인식 3.36±0.61점, 공상적 타인인식 3.32±0.6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43±0.29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자기인식은 학년(F=3.93, p=.009), 실습경험(t=0.42, p=.006), 학업성취수준(F=7.0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은 1,2,3학년에 비해 4학년이,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학업성취수준은 '만족할만한 수준', '미흡한 수준'보다 '우수한 수준'이 자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인식은 성별, 학년, 종교, 의사소통교육 경험, 실습경험, 경제상태, 가족 의사소통양상,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차이는 실습경험(t=2.60, p=.010)과 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2 (13.5)
	Female	205 (86.5)
Grade	Freshman	56 (23.6)
	Sophomore	60 (25.3)
	Junior	60 (25.3)
	Senior	61 (25.7)
Religion	Yes	140 (59.1)
	No	97 (40.9)
Economic status	High	7 (3.0)
	Middle	198 (83.5)
	Low	32 (13.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127 (53.6)
	No	110 (46.4)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120 (50.6)
	No	117 (49.4)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21 (9.0)
	Position-centered	54 (23.1)
	Person-centered	159 (67.9)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37 (15.9)
	Satisfactory	114 (48.9)
	Not satisfactory	82 (35.2)

Table 2. The Degree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N*=237)

Variable	M±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elf-awareness	3.40±0.32	2.45	4.50
Public self-awareness	3.77±0.58	1.60	5.00
Private self-awareness	3.54±0.39	2.44	4.56
Social anxiety	2.88±0.70	1.17	5.00
Other-awareness	3.41±0.50	2.00	4.95
Internal other-awareness	3.46±0.54	2.00	4.92
External other-awareness	3.36±0.61	1.40	5.00
Fancy other-awareness	3.32±0.66	1.75	5.00
Communication ability	3.43±0.29	2.61	4.47

업성취수준(F=6.70,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한' 경우에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r=.59, p<.001) 및 타인인식(r=.22, p<.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불안(r=.41, p<.001), 사적 자기인식(r=.40, p<.001), 공적 자기인식(r=.24,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27, p<.001)과 공상적 타인인식(r=.16, p=.014)과도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간에도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 p<.001). 자기인식의 하위영역 중에 공적 자기인식(r=.60, p<.001), 사적 자기인식(r=.33, p<.001)은 타인인식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불안(r=-.23, p<.001)은 타인인식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33, p<.001), 외적 타인인식(r=.17, p<.001) 및 공상적 타인인식(r=.21, p<.001)과 자기인식 간에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인식의 하위영역과 타인인식의 하위영역 간의 관련성에서는 내적 타인이식이 공적 자기인식(r=.59,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적 자기인식(r=.35, p<.001)과도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과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 공상적 타인인식, 그리고 대상자 특성 중 의사소통능력에 차이를 나타낸 실습경험, 학업성취수준을 가변수

Table 3. The Degree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2 (13.5)	3.35±0.39	-0.97	3.37±0.53	-0.51	3.39±0.30	-0.85
	Female	205 (86.5)	3.40±0.31	(.336)	3.42±0.50	(.614)	3.44±0.29	(.397)
Grade	Freshman[a]	56 (23.6)	3.28±0.27	3.93	3.33±0.44	1.07	3.36±0.26	1.87
	Sophomore[b]	60 (25.3)	3.41±0.32	(.009)	3.45±0.51	(.364)	3.43±0.32	(.136)
	Junior[c]	60 (25.3)	3.41±0.27	d>a, b, c	3.37±0.53		3.45±0.28	
	Senior[d]	61 (25.7)	3.47±0.38		3.48±0.53		3.48±0.29	
Religion	Yes	140 (59.1)	3.42±0.30	0.14	3.40±0.50	-0.48	3.44±0.29	0.86
	No	97 (40.9)	3.36±0.35	(.211)	3.43±0.52	(.629)	3.41±0.29	(.394)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127 (53.6)	3.41±0.34	0.93	3.43±0.50	0.61	3.43±0.31	-0.04
	No	110 (46.4)	3.38±0.30	(.352)	3.39±0.52	(.541)	3.43±0.27	(.971)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120 (50.6)	3.45±0.34	0.42	3.42±0.55	0.21	3.48±0.28	2.60
	No	117 (49.4)	3.34±0.30	(.006)	3.40±0.46	(.834)	3.38±0.29	(.010)
Economic status	High	7 (3.0)	3.31±0.42	0.25	3.11±0.25	1.61	3.46±0.35	0.15
	Middle	198 (83.5)	3.40±0.30	(.783)	3.41±0.49	(.202)	3.43±0.29	(.860)
	Low	32 (13.5)	3.40±0.42		3.49±0.63		3.41±0.32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21 (8.9)	3.44±0.35	0.34	3.31±0.46	1.06	3.42±0.37	0.09
	Position-centered	54 (23.1)	3.37±0.31	(.711)	3.49±0.51	(.350)	3.45±0.27	(.910)
	Person-centered	159 (67.9)	3.40±0.33		3.40±0.51		3.43±0.29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a]	37 (15.9)	3.56±0.35	7.03	3.49±0.49	0.60	3.57±0.34	6.70
	Satisfactory[b]	114 (48.9)	3.40±0.32	(.001)	3.39±0.49	(.549)	3.43±0.29	(.001)
	Not satisfactory[c]	82 (35.2)	3.33±0.28	a>b, c	3.41±0.51		3.37±0.25	a>b, c

a, b, c, d=Scheffé test.

처리하여 이들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16~.59로 .80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공차한계의 범위는 .85~.96로 공차한계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범위는 1.04~1.17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 값은 1.80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인식의 사회적 불안(β=.45, p<.001), 사적 자기인식(β=.31, p<.001), 내적 타인인식(β=.26,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F=46.51, p<.00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0±0.32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사적 자기인식은 3.54점, 공적 자기인식은 3.77점, 사회적 불안은 2.8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수준은 Park과 Choi[6]의 3.45±0.4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Park과 Kim[8]의 3.50±0.38점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이다. 본 연구대상자와 발달단계가 달라서 단순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Eun[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인식 정도가 3.31점으로 보고된 결과보다는 다소 높았다. 또한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에서 공적 자기인식 정도가(평균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ark과 Choi[6]의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평균 3.66점)과 Park 과 Kim[8]의 간호대학생 3.68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공적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사적 자기인식은 개인의 내적사고와 동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을 고려할 때[11],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이 대인관계 맥락

Table 4. Correlations for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and Predictable Variables of Participants (*N*=237)

Variable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SA.	Pri. SA.	Publ. SA.	Soci. A.	OA.	Inter. OA.	Exter. OA.	Fancy. OA.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OA.	.30 (<.001)	.33 (<.001)	.60 (<.001)	-.23 (<.001)				
Inter. OA.	.33 (<.001)	.35 (<.001)	.59 (<.001)	-.19 (.003)	.94 (<.001)			
Exter. OA.	.17 (.008)	.20 (.002)	.47 (<.001)	-.23 (<.001)	.77 (<.001)	.58 (<.001)		
Fancy. OA.	.21 (.001)	.24 (<.001)	.44 (<.001)	-.18 (.005)	.81 (<.001)	.68 (<.001)	.53 (<.001)	
CA.	.59 (<.001)	.40 (<.001)	.24 (<.001)	.41 (<.001)	.22 (.001)	.27 (<.001)	.07 (.289)	.16 (.014)

SA.=Self-awareness; Pri. SA.=Private self-awareness; Public. SA.=Pub self-awareness; Soci. A.=Social anxiety; OA.=Other-awareness; Inter. OA.=Internal other-awareness; Exter. OA.=External other-awareness; Fancy. OA.=Fancy other-awareness; CA.=Communication ability.

Table 5. Factors Predicting Communication Ability by Multiple Regression (*N*=237)

Variables	B	SE	β	t	*p*
Social anxiety	.19	.02	.45	8.54	<.001
Private self-awareness	.24	.04	.31	5.66	<.001
Internal other-awareness	.14	.03	.26	4.54	<.001
R^2=.38, Adj. R^2=.37, F=46.51, p<.001.					

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적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22].

간호대학생의 타인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1±0.50점이었고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은 3.46점, 외적 타인인식은 3.36점, 공상적 타인인식은 3.3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타인인식 수준은 자기인식과 마찬가지로 발달단계가 달라 단순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나 Eun[18]의 3.19±0.6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교육과정 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여 경청, 접촉과 신체움직임과 같은 비언어적 공감적 이해를 필요[14,17,23]로 하는 타인인식을 다룬 교육을 적용한 효과의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이를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타인인식을 비교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타인인식의 하위영역 중 내적 타인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이 다른 사람의 심리내적인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18]하는 능력이 잘 발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적 타인인식이 내적 타인인식 점수 보다 낮은 점수 보이는 결과, 이는 타인의 내면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이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공감적 수준에 대한 강화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총점은 5점 만점에 3.43±0.29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Oh[17]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점수 3.45±0.41점과 비슷하였다. 반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1]의 연구에서는 3.13±0.29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간호학 교육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교과목 교육과 임상실습 중 의사소통훈련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를 가져 온다는 선행연구결과[4,12,24,25]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 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6,25,26]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실제 대상자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상황 재연을 적용하여 의사소통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사통능력을 고무 시킨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inke, Light과 Kitko[27]가 간호대학생이 실습 중 대상자와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말한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인식간에는 순상관관계(r=.5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m[14], Oh[17], Han 등[24]과 Birkholz, Clements, Cox와 Gaume[2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13]이 정의한 것과 같이 자신을 보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이 되고, 우리 자신을 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므로 자기인식은 의사소통능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의 하부영역인 사적 자기인식(r=.40, p<.001) 및 공적 자기인식(r=.24, p<.001), 사회적 불안(r=.41, p<.001)과도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및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Park과 Choi[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사적 자기인식과 공적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감정, 태도, 사고 등을 더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상황에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반면 Park과 Choi[6]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안이 있는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려는 주의를 증가시켜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타인인식과 의사소통능력은 순상관관계(r=.22, p<.001)로 다른 사람에 대한 주의나 관심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27, p<.001), 공상적 타인인식(r=.16, p=.014)과도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연구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 의미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감성이 필요하다[2]는 맥락에서 내적 타인인식과 공상적 타인인식은 의사소통능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의사소통능력을 더욱 향상 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사회적불안과 사적자기인식 및 내적 타인인식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Park과 Choi[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자기인식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주요변인임을 보임으로써 Park과 Choi[6]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Park과 Kim[8]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적 자기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내적 타인인식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로 주로 타인의 비언어적인 인지나 해석과 상관이 높은 것을 말한다[1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신체언어나 음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시 대상자를 올바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음성언어와 대상자의 감정과 관련된 비음성언어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함[29]을 제시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기인식의 사회적 불안과 사적 자기인식, 타인인식의 내적 타인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사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과 내적 타인인식을 포함한 의사소통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임상간호실습 현장에서 대상자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며, 자기인식 훈련을 포함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간호교육과정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소통교육 내용의 한 부분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강조되고 있지만,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이들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Bramhall E. Effect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practice. Nursing Standard. 2004;29(14):53-59. http://dx.doi.org/10.7748/ns.29.14.53.e93556
2. Lee KJ, Ko SH, Lee S, Kim KH, Min SY, Choi YJ, Lee KH.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eoul: Hyunmoon; 2014. p. 15-17.
3. Rosenberg S, Gallo-Silver L.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and student nurses in the clinical setting.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2011;6(1):2-8. http://dx.doi.org/10.1016/j.teln.2010.05.003
4. Hanifi N, Parvizy S, Joolaee S. The miracle of communication as a global issue in clinical learning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12;47:1775-1779. http://dx.doi.org/10.1016/j.sbspro.2012.06.899
5. Bai JI.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99;8(2):411-423.
6. Park JW, Choi M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51-360.
7. Boschma G, Einboden R, Groening M, Jackson C, MacPhee M, Marshall H. Strengthening communication education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2010;7(1):14. http://dx.doi.org/10.2202/1548-923X.2043
8. Park SW, Kim GM.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interpers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1;19(1):1-10.
9. Lee OS, Gu M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749-2759.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10. Lee SH, Chung SE.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340-349.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340
11. Ji EJ, Bang MG,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

19(4):571-579.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12. Park YS, Im SB, Kim HS.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61-368.
13. Lee KS, Lee MK, Kim KH. Human relation & communication. Seoul: Hyunmoon; 2012. p. 61-80.
14. Im SB.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awareness. Health Communication. 2006;1(1):59-66.
15. Silvia PJ, O'Brien ME. Self-awareness and constructive functioning: Revisiting 'The human dilemm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04;23:475-489.
http://dx.doi.org/10.1521/jscp.23.4.475.40307
16. Engin E, Com O. Effect of self-awareness education on the self-efficacy and sociotropy-autonomy characteristics of nurse in a psychiatry clinic.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009;23(2):148-156. http://dx.doi.org/10.1016/j.apnu.2008.05.003
17. Oh YJ.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08.
18. Eun HG.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1;9:136-157.
19. Im SB, Min BK, Goh JK.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Health Communication. 2007;2(2):105-112.
20. Fenigstein A, Scheier MF, Buss AH.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5;43(4):522-527. http://dx.doi.org/10.1037/h0076760
21. Lee SJ, Chang YK, Lee HN, Park K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03.
22. Asendorpf JB, Baundonniere PM.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Mirror self-recognition and synchronic imitation among unfamilia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993;29(1):88-95.
23. Jack K, Smith A. Promoting self-awareness in nurses to improve nursing practice. Nursing Standard. 2007;21(32):47-52.
http://dx.doi.org/10.7748/ns2007.04.21.32.47.c4497
24. Han KS, Park YJ, Kim KM, Oh YJ, Jin JH, Kang HC.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8;17(1):28-34.
25. Xie J, Ding S, Wang, C, Liu A. An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during practical clinical training. Nurse Education Today. 2013;33(8):823-827.
http://dx.doi.org/10.1016/j.nedt.2012.02.011
26. Hyun MY. The communication training needs of nurse in the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11(4):443-451.
27. Finke EH, Light J, Kitko L.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nurse communication with patients with complex communication needs with a focus on the use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8;17(16):2102-2115.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08.02373.x
28. Birkholz G, Clements PT, Cox R, Gaume A. Student's self-identified learning needs: A case study of baccalaureate students designing their own death and dying course curriculu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4;43(1):36-39.
29. Lee KS, Lee MK, Kim KH. Human relation and communication. Seoul: Hyunmoon; 2006. p. 116-122.